

전국 승가대 교과과정 통일

조계종, 내년부터...경학원에 개선연구 의뢰

조계종 교육원(원장 일면)은 6월 30일 은해사 승가대학원 1기 졸업생모임인 조계종 경학원(회장 능해, 범어사강원 강사)과 '승가대학 교과과정 개선 연구' 의뢰계약을 맺고, 본격적인 승가대학 교과과정 통일화 작업을 나섰다.

조계종 경학원(經學苑)은 교과과정 개선을 위해 4급 승가고시 제도

개선에 따른 출제교과목 선정 및 기본교육기관 기본교과목의 통일성 확보를 목표로 △기본교육 방향설정과 교과개편 대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 2회 개최 △교과 현황과 문제점 파악을 위한 교육기관 실태조사 △강사·학인 설문조사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연구성과를 8월 말까지 교육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교육원은 경학원의 승가대학 교과개편 보고서를 기초로 9월경 공청회, 10월 교직원(중강) 연찬회를 거쳐 학장회의에서 표준교과목을 심의한 뒤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조계종 16개 승가대학의 경우 치문, 사집, 사교, 대교반을 기준으로 교과목이 정리되어 있기는

하나 개설 과목이 각각 상이하고, 여기에도 동국대, 중앙승가대, 기초선원과의 교과목 편차는 더욱 심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 승가대학 교과목 통일화 작업은 일원화된 승려 기본교육체계를 확립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교육원은 전국 승가대학 교과과정 개선 작업을 마친 뒤 중앙승가대 동국대 기초선원등 기본교육기관 기본교과목 통일성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여 종단 기본교육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장 계성순님은 "전국승가대학 교직원회의와 공동으로 승가대학 교과과정 개선을 추진했으나 진전을 보지 못했다"며 "올해 내 기본교육기관 기본교과를 통일화하고 내년 1학기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 경학원은 종립 은해사 승가대학원(원장 무비) 1기 졸업생 10명의 경전연구모임으로 경학연찬회와 종단교육발사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5월 창립됐다. 조계종 교육원 산하단체로 등록된 경학원은 경전, 선어록을 연구하여 발표하는 경학산문을 매년 하안거 이후 1주일간 열 계획이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opia.com)

기본교육체계 확립

기본교과 통일 '의미'

승가고시 시행포석

강원의 경우 교구본사, 4년제 대학은 교육기관의 방침과 방향에 따라 교과목이 편성돼 기관별 교육차별화가 심한 상태. 그러다 보니 승가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종단 교육현장이 하나의 완결된 체계를 이루지 못해 21세기 승가승학을 위한 승가교육개혁은 요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기본교과과정의 통일은 종단에서

제시하는 전공필수에 해당하는 공통교과목과 교양교과 및 수행을 함께 이수함으로써 출가사문으로서 공통된 의식기반과 사상적 방향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종단차원에서 학인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원제 시행, 졸업자격조사, 수행기록부 시행, 학제정착 등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전국승가대학교직원회 회장 지오스님(해인사 승가대학장)은 "4급 승가고시가 기본교육과정 이수자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종단 교육현장이 하나의 완결된 체계를 이루지 못해 21세기 승가승학을 위한 승가교육개혁은 요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기본교과과정의 통일은 종단에서



종교청년 평화캠프 '다름은 아름다운 것'

3회 종교청년 평화캠프에 참가한 원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천도교 청년들이 6월 29일 조계사를 방문, 발우공양을 하며 오관계를 독송하고 있다. 이번 캠프는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원불교 본도청소년수련원과 천주교 배론성지 등에서 진행됐다. 사진=고영배 기자

"자료제출 불응 종단무시 처사"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

조계종 중앙종회 종립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영담)는 6월 27일 중회사무처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송재은 동국학원 사무처장을 불러 자료제출 불응 발언에 대해 따졌다.

송 사무처장은 3차에 걸쳐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도 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 "사무처에서 이사회에 보고했으나 결정된 것이 없어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답했다. 위원들이 재차 "이사회에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나"라고 묻자 침묵을 지켰다.

연구소위원회는 이에 대해 "종단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이사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종단을 무시한 처사"라고 밝히고 동국학원에 유감의 뜻을 전하기로 했다. 정성운 기자

조계종 문화부장에

혜자스님 임명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24일 오전 총무원 문화부장에 혜자스님을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또 문화부장에는 항명스님(안산 선계사 주지)을 임명했다. 혜자스님은 청담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여 67년 사미계, 76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현 조계종 소정심사위원, 상계종 도안사 주지, 대한불교 청산교구교무원연합회 이사, 청담학원 이사, 노년경찰서 경승.

항명스님은 성오스님을 은사로 출가, 85년 자운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정성운 기자

법주사 총회의원 보궐선거

도공·원담스님 당선

법주사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도공(사진 왼쪽), 원담 스님이 당선됐다. 6월 29일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진구스님이 문화회장을 위해 후보를 사퇴함으로써 도공, 원담 스님이 무투표 당선됐다. 도공스님은 탄성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73년 월산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현 충북청원 현암사 주지, 청주불교방송 사장. 원담스님은 무상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77년 이두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청주불교방송 본부장을 역임했다. 정성운 기자

申 "달라이라마 방한 허용 유감"

"한국 외교주권 침해말라"

국회의원 모임, 申에 촉구

중국은 6월 27일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라마를 오는 11월에 방한하도록 허용한 한국측에 유감을 표명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주방자오(朱邦造)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달라이라마는 종교적인 인물이 아니라 티베트 독립 운동을 벌이고 있는 망명자"라면서 "중국은 외국 정부

가 달라이라마를 초청, 정치적인 포럼을 개최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는 모임'(대표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은 6월 28일 "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외교주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자제하길 바라며 한국 정부도 문화주권을 담당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택스님은 27일 티베트 일원대표부 대사 자를린포체의 예방을 받는 자리에서 "달라이라마 방한하면 조계종에서 모든 행사를 주관하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해서 달라이라마를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통일 교육프로 개발"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정념)는 6월 29일 불교회관(총에서 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7차례의 정책세미나 개최, 북한불교회담, 자료집 및 소식지 발간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키로 하고 이에 따른 1억9천250만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정책기획위원회 등 3개 위원회는 27일 첫 모임을 갖고 이달 초 '남북통일시대 불교의 역할' 주제의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정성운 기자

이번 기본교육기관 기본교과 통일화를 위한 승가대학(전통강원) 교과과정 개선작업은 도제양성과 승려의 자질향상 체계를 확립기 위한 4급 승가고시 시행의 사전포석으로 풀이된다.

교육원은 기본교과 통일화를 통해 기본교육 체계의 완결성을 확립, 종법상 기본교육 목표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종법상 인정하는 기본교육기관은 해인사강원등 16개 승가대학과 기초선원 교육부 인정 4년제 대학인 중앙승가대와 동국대로 이뤄져 있으며, 현재 1300여명의 사미·사미니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나 같은 기본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내용과 습의교육이



전국 10개대학 불교학 전공교수들이 6월26일 조계종 포교원 주관으로 해인사 총재실에서 모임을 갖고 불교학과 신학의 상호보완 관계를 모색했다.

"불교학과 신학 상호 보완 관계"

불교전공 교수들 '산사의 만남'

불교학 전공교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불교학과 신학'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종단 관계자들과 기탄없는 의견을 교환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연) 주관으로 6월 26일부터 1박2일간 해인사 총재실에서 열린 이번 산사의 만남에는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 등 전국10여개 대학에서 20여명의 교수와 조계종 포교부장 상운스님, 포교국장 주경스님 등이 참석했다. 워크숍 첫 번째자로 나선 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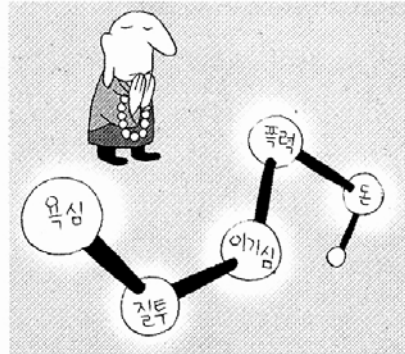
기교수(전북대 철학과)는 "불교가 지적인 작업에만 머물러서는 말이 끊어질 개척의 세계를 온전히 전할 수 없다"며 "믿음과 이해를 함께 하는 신해상경(信解相應)이야말로 불교를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자세로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강대 종교학과 김희성 교수는 "대학의 불교학이 포교의 수단으로 되어서는 안되지만 인간의 내면적 세계를 다루는 불교학이 신학과 완전히 무관할 수는

없지만 어떤 형태로든 통합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단에 대한 이해와 의견수렴" 시간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이 자리에서는 △역사적인 부분에서 치중된 불교학의 세분화 △선지식의 법문 A/V 자료나 불교 관련자료 정리 △불교도서서설 및 불교관련 학술제 의식제정 △경전 한글화 가속 △문화재관람료사찰 불교홍보책자 배포 △주말법회 활성화 △도심사찰 적극적인 포교방안 마련 △종단차원의 불가지침 마련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윤호 기자

현대만평 박구원



인간 유전자를 해독했더니...

혜초여행개발(주)

HYECHO ADVENTURE TOURS.

대표 ☎ 733-3900 6263-3900

Fax. 733-3780

www.hyecho.co.kr E-Mail:hyecho@hyecho.co.kr

Tibet 금단의 大地 티벳 걸망여행 ₩990,000

평균고도 4,000m! 네팔은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티벳고원... 스스로 불교 평안을 지향하는 티벳인들의 삶... 그리고 히말리야! 시간출발! 네팔은 티벳으로의 순례를 시작하십시오.

· 일 정 : 서울 - 네팔, 카트만두 - 히말라야를 넘어 티벳 평원으로 (자유일정)...
· 포함사항 : 국제선항공료(아시아항공+네팔항공 : 1년 항공권) 중국 및 티벳여행허가서, 카트만두 1박
· 출발 일 : 매주 화, 목, 토 개별출발

JEEP 타고 티벳평원을 횡단 ₩1,990,000

· 일 정 : 카트만두-라사-장제-시가체-시가-장무-카트만두(11박 12일)
· 포함사항 : 항공료, 숙박(조식포함), Jeep(4인승), 중국비자, 티벳여행허가서, 사원입장료, 영어가이드, 보험
· 출발 일 : 매주 목요일(4명 이상 - 최소규모 출발합니다)
* 영국, 독일, 프랑스, 한국 연합상품으로 Jeep 이용조건

佛子世界

걸망메고 대륙의 중앙으로....

스포츠 조선과 함께 하는 중국 실�크로드 문화탐방 여행 8일 ₩1,349,000

· 일 정 : 서울 - 서안 - 둔황 - 유원 - 투루판 - 우루무치 - 서안 - 서울
· 포함사항 : 국제선항공료, 국내선항공료, 비자비용, 공항세, 보험, 특급호텔 안내인, 전용차량, 일정상의 전식
· 출발 일 : 7/14, 21, 28 8/4

실�크로드 (Silkroad) 長安에서... 쿤지랍까지 ₩1,690,000

불교전승지인 실�크로드에서 동, 서양을 넘나들던 구림스님들을 생각하며....
· 일 정 : [21박 22일] 서안-난주-가육관-둔황-유원-투루판-키슈가르-타스쿠르간-쿤지랍고개(비스)-우루무치(열차)-서안
· 포함사항 : 항공료, 비자, 숙소, 현지안내인, 도시권의 이동, 보상한도 1억원 여행가 보험
· 출발 일 : 7/24, 7/31, 8/7 (10명 이상 출발)

인도전문 여행사 예초에서 선보이는 세천년 인도, 네팔 자유여행(28일) ₩1,990,000

◆ 인도 대도시 : 델리, 아그라, 지미푸르, 비라나시, 카주라호
◆ 불교 성지 : 룸비니, 쿠시나गर, 녹야원
◆ 북인도 : 다람살라, 레, 스리나गर, 짐무
◆ 네팔 : 카트만두 여행중 다양한 장소, 충분한 여행 스케줄

· 일 정 : 서울 - 네팔 - 카트만두 - 히말라야를 넘어 티벳 평원으로 (자유일정)...
· 포함사항 : 국제선 항공, 열차, 차량, 숙소(조식포함), 보험, 안내
· 불포함사항 : 비자비용, 여권발급비, 서울 공항세
· 출발 일 : 10명 이상 수시 출발

전통의 성지순례전문 예초에서 선보이는 인도·네팔 불교성지순례 ₩990,000

부처님의 4대성지인 탄생지, 성도지, 초전법륜지, 열반지 순례 및 8대성지 순례.
* 순례후 카트만두에서 개별적으로 귀국 가능합니다. (아시아항공+네팔항공 : 1년 항공권)

· 일 정 : 네팔-비라나시(녹야원)-부다가야(성도지)-라나다 불교대학-라즈기르(영축산,왕사성,죽림정사)-파트나-바이살리(대림정사,아쇼카 석주)-쿠시나गर(열반사,다비터)-사해트 마헤트(사위성, 기원정사)-룸비니-카트만두-방콕-서울(10일간)
· 포함사항 : 1년 항공권, 숙소(조식포함), 한국안내인, 전용차량
· 출발 일 : 15명 이상 수시 출발